



미 증시, 유가 급등·긴축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과 반도체주 약세로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3일(월)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화물에 대한 20% 비용 부과 및 이란 봉쇄 재개 선언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월러 연준 이사의 추가 긴축 가능성 언급에 국채금리까지 상승하며 하락 마감.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최근 급등했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메모리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위험회피 심리 확대. (다우 -0.26%, S&P500 -0.79%, 나스닥 -1.55%).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과 화물에 20%의 비용을 부과하고, 이란 선박과 거래 상대국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격화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인 만큼 원유 수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우려가 확산되며 WTI가 9%대 급등하고 브렌트유도 배럴당 80달러 중반까지 상승. 특히 이번 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한 추가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주요 변수로 부각되는 상황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도 긴축 경계감을 자극. 월러 이사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공급 부족이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관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AI 관련 수요까지 더해질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차 확대될 수 있으며,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게 확인될 경우 연준이 추가 긴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이에 7월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34.21%에서 41.69%로 상승했고, 미 국채금리 상승과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반영

이러한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 최근 상승 폭이 컸던 반도체 업종에는 차익실현 매물까지 집중. 지난 10일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ADR은 첫날 두 자릿수 상승했으나 이후 상장 기대감 소멸과 단기 급등 부담으로 9%대 하락. 샌디스크와 마벨테크놀로지, 웨스턴디지털 등 주요 메모리·스토리지주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반도체 업종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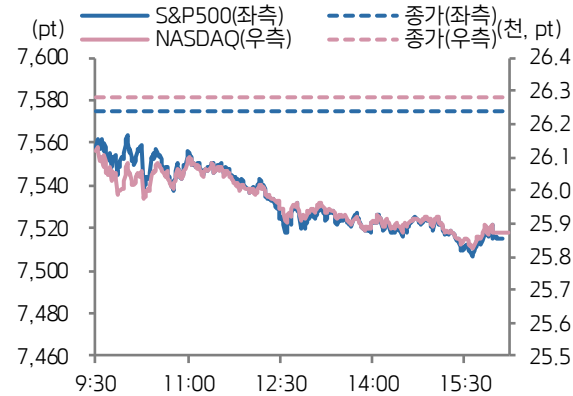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 차익실현 매물과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겹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급락. 금일에도 코스피 야간선물과 미국 반도체·메모리주 약세 영향으로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세 출발할 전망.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 역시 외국인 수급과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다만 전일 코스피가 9% 가까이 급락한 만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장 초반 하락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할 것으로 예상

당분간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 상존. 다만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국내 펀더멘털이 아직 훼손되지 않았고 기존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요인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과도한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 금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물가가 시장 전망에 부합하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

도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연준의 긴축 부담이 점차 완화되며 중동 불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일부 제한해줄 것으로 기대. 이후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AI 투자 확대와 실적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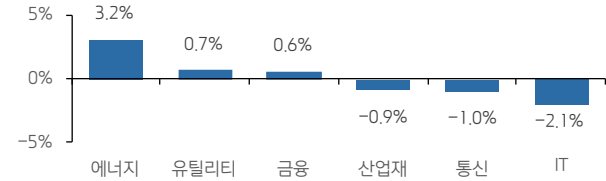
www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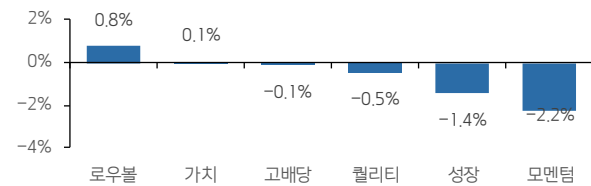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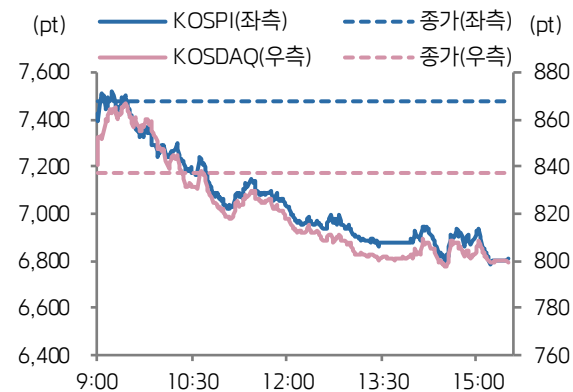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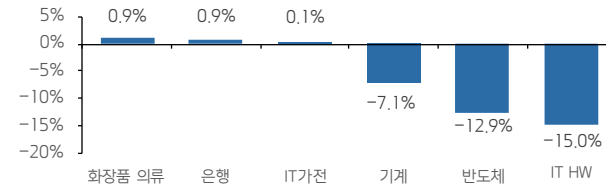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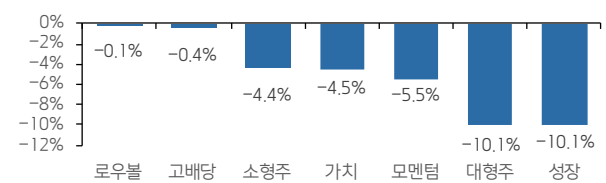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17.31	+0.63%	+16.72%	GM	76.72	-1.45%	-5.66%
마이크로소프트	390.99	+1.53%	-19.15%	일라이릴리	1,181.87	-0.56%	+9.97%
알파벳	352.51	-1.31%	+12.62%	월마트	114.78	+0.77%	+3.02%
메타	656.73	-1.86%	-0.51%	JP모건	334.53	-0.58%	+3.82%
아마존	247.31	+0.8%	+7.14%	엑손모빌	144.51	+4.05%	+20.08%
테슬라	394.76	-3.19%	-12.22%	세브론	182.20	+3.29%	+19.55%
엔비디아	203.53	-3.52%	+9.13%	제너럴일렉트릭	114.78	+0.8%	+3%
브로드컴	384.05	-3.98%	+10.97%	캐터필러	931.47	-2.2%	+62.6%
AMD	534.39	-4.21%	+149.53%	보잉	215.51	-3.05%	-0.74%
마이크론	937.00	-4.32%	+228.3%	넥스트에라	88.38	+0.5%	+1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806.93	-8.95%	+61.52%	USD/KRW	1,495.95	-0.22%	+3.92%
코스피200	1,078.78	-9.85%	+78.02%	달러 지수	101.28	+0.32%	+3.01%
코스닥	799.36	-4.55%	-13.63%	EUR/USD	1.14	-0.31%	-3.11%
코스닥150	1,384.89	-4.89%	-10.5%	USD/CNH	6.79	+0.05%	-2.73%
S&P500	7,515.34	-0.79%	+9.79%	USD/JPY	162.43	+0.46%	+3.65%
NASDAQ	25,873.18	-1.55%	+11.32%	채권시장			
다우	52,498.64	-0.26%	+9.23%	가격	DTD(bp)	YTD(bp)	
VIX	17.16	+14.17%	+14.78%	국고채 3년	3.810	+4bp	+85.9bp
러셀2000	2,953.17	-0.83%	+18.99%	국고채 10년	4.267	+3.1bp	+88.2bp
필라. 반도체	12,347.78	-4.78%	+74.33%	미국 국채 2년	4.282	+7.4bp	+80.9bp
다우 운송	22,210.75	+0.15%	+27.96%	미국 국채 10년	4.624	+6.3bp	+45.7bp
상해종합	3,913.79	-2.06%	-1.39%	미국 국채 30년	5.105	+4.7bp	+26.2bp
항생 H	8,065.97	+0.33%	-9.51%	독일 국채 10년	3.109	+4.4bp	+25.4bp
인도 SENSEX	77,616.40	+0.06%	-8.92%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6,271.02	+0.02%	+8.28%	WTI	78.14	+9.42%	+36.99%
MSCI 전세계 지수	1,116.86	-0.86%	+10.08%	브렌트유	83.30	+9.59%	+36.89%
MSCI DM 지수	4,867.82	+0.34%	+9.87%	금	4,005.70	-2.63%	-9.79%
MSCI EM 지수	1,690.70	+0.89%	+20.39%	은	57.63	-3.64%	-18.37%
MSCI 한국 ETF	168.02	-8.45%	+72.82%	구리	623.30	-0.01%	+9.7%
디지털화폐				BDI	2,944.00	+1.17%	+56.85%
비트코인	62,149.53	-3.14%	-29.09%	옥수수	463.25	+0.49%	+0.6%
이더리움	1,765.80	-3%	-40.7%	밀	635.25	-0.78%	+16.4%
				대두	1,194.75	+0.34%	+12.24%
				커피	330.00	-1.27%	+3.0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1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